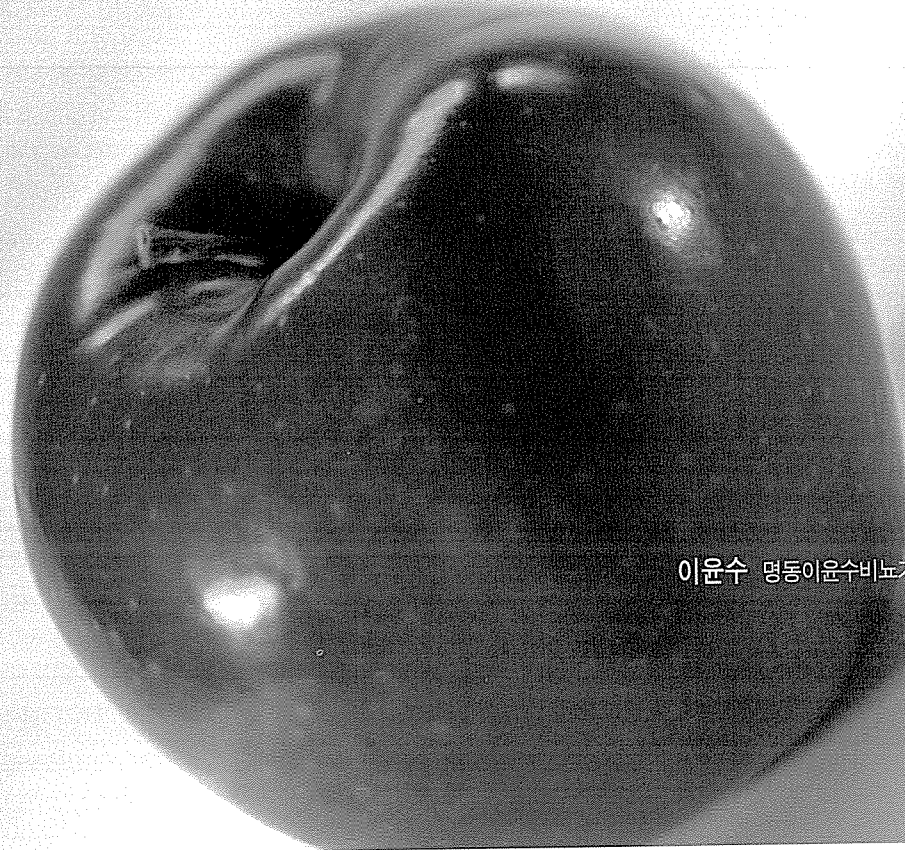


# 다시 되찾은 젊음



이운수 명동이운수비뇨기과병원 원장

**성**적 능력을 증가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에로스의 화살을 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만일 물개를 능가하는 그런 약이 있다면 주시겠어요?’ 하면서 환자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지금보다 발기 강직도가 조금만 더 세었으면 좋겠는데... 성생활에 자신이 없어요.’ ‘갑자기 관계 도중에 발기가 죽는 일이 생기고 나서는 도저히 집사람 곁에 가기가 겁나요.’ 남성들은 발기가 안되다 보면 벌써 정력이 떨어지고 딱딱 늙은 기분이 들뿐 아니라 매사에 의욕이 없어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이렇게 망가지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한탄을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기력은 정력의 척도이며 모든 남성들의 대명제라고 할 수 있겠다. 미래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의학이 발달된다면 정력과 회춘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다행히 한편에서는 의공학의 발달로 여러가지 인체의 대체품을 만들어냈다.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외부의 물체를 직접 볼 수 있는 인공눈까지도 조만간에 만들어 실용화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의공학은 심각한 발기부전 환자들을 위해서 발기가 가능하게끔 음경내에 인공보형물을 넣어주는 음경보형물을 만들었다. 음경해면체에 보형물을 넣어 인공적으로 자연스럽게 발기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성생활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보형물 삽입수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발기장애로 인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고 더욱이 몸에 칼을 대기도 싫고 하여 수술을 기피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술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몇 년 전까지 보형물수술은 기계적인 고장이나 감염증 등의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재료공학의 발달과 수술기법의 발전은 최근 합병증이 발생을 최소화시켰다.

처음 만들어진 굴곡형 보형물 이후 좀더 자연스러운 모양의 현재와 같은 3조각형까지도 개발되었다. 음경해면체에 들어가는 보형물과 음낭에 장착되는 펌프 그리고 뱃속에 넣은 생리식염수 저장주머니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필요에 따라 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최근에는 3조각으로 나뉜 각 부위의 기능을 하나 또는 2개 부분으로 통합한 자가 팽창형도 개발되었다. 외견상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상대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이다.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면서까지 꼭 성관계를 가져야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살아가는 데 섹스가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 살아가는 데 섹스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동물적 본능은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남성을 보면서 무기력과 패배의식을 갖게 한다.

중소기업체 사장인 K씨는 젊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던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일중독자라고 까지 하였다. 환갑을 앞둔 지금도 남 못지 않은 정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그가 그날만 생각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었다. 술집에서 그날따라 시중



들던 아가씨가 맘에 들어 같이 간 것이 잘못이었다. 마음과는 달리 자신의 남성은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가씨의 도움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는 남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혹시나 하여 그후로도 몇 차례 시도를 해보았다. 그러나 나아지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실패만을 확인할 뿐이었다. 자신의 성이 더이상 힘을 못 쓰는 것을 보니 인생의 황혼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석상에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집중이 안되고 멍해지는 것이다.

그러던 그가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어느 술자석이었다. 친구도 일찍부터 당뇨로 인하여 발기가 안되었는데 음경보형물수술을 받은 후 현재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술을 받은 후 어느 날 찾아온 그의 표정에는 젊은이와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수술 하나로 다시 성관계가 가능해지고 자신의 청춘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매사에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다. 